κόκκος

한국성서대학교 KOREAN BIBLE UNIVERSITY 코크스는 '한알의 밀을 의미 • 발행인 강우정 • 편집주간 이강동 •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 TEL 02-950-5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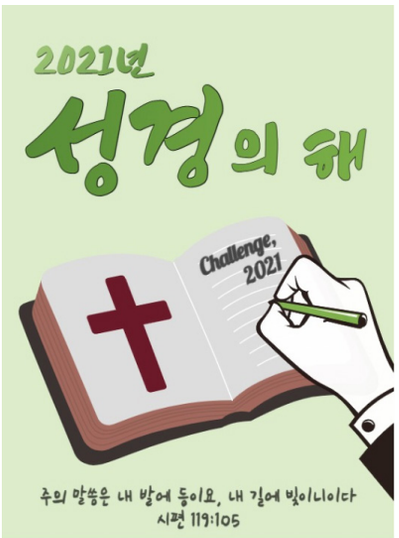
4 2021 APR VOL. 229
www.bible.ac.kr

간호학과 4 학년 학우들이 갈멜관 앞 벚꽃 아래에 모여 우정과 추억을 담아내고 있다 .
새하얀 벚꽃과 미래 백의 (白衣) 의 천사와의 멋진 조합이 아름답다 .

올해는 성경의 해
『Challenge-2021』 프로젝트

재학생 교직원 성경 필사 (筆寫) 도전

'인생행로에 말씀의 빛 가득 비춰지길'



2021년 3월 8일 ~ 2022년 2월 28일
한국성서대학교 일립교육부 신앙훈련과

▲ 성경의 해 포스터

올해는 '성경의 해' 이다. 성경은 우리대학의 교과서요, 학교 설립의 근본이며 복음전도자로서의 정체성과 같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 이니이다" (시 119:105) 를 주제 성구로 정한 교목실은 (실장 유정선) 우리 공동체가 성경을 읽고 손으로 필사 (筆寫) 하는 『Challenge-2021』 를 실천한다.

이번 프로젝트는 재학생과 교직원 투 트랙으로 진행된다. 성경 1 권을 70 페이지 분량의 필사용 Challenge Book 성경노트 107 권으로 만들었고 총 3 셋트 (전체 321 권) 를 구비하였다. 필사성경 목표는 재학생이 성경 2 권, 교직원은 성경 1 권 제작하기이다.

재학생은 3 월 31 일 현재 자원한 72 명이 성경 필사에 참여하고 있다. 학과별로는 성서 33, 사복 10, 영보 14, 컴소 3, 간호 12 명, 학년 현황은 1 학년 19, 2 학년 16, 3 학년 27, 4 학년 10 명이다. 학우들은 자신의 역량에 따라 최소 1 권에서 최대 10 권 이상을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프로젝트 시작 한 달이 안됐지만 벌써 5 권을 필사하고 있는 학우도 있다.

성경 필사 프로젝트 마감은 오는 6 월 30 일까지다. 학우들은 필사를 마치고 프로젝트가 주는 목적과 의미를 소감문에 기록한다. 완성본 중에 이모티콘이나 용어해설 및 감사기도 등 개성을 새겨놓은 학우도 눈에 띈다. 필사본은 제본과정을 거쳐 학교 도서관에 영구 보관한다.

안민혜 (성서 4) 학우는 " 성경필사가 처음이며 디모데전 · 후서를 기록하고 있다. 디모데전체의 숲과 내면을 조망하면서 내가 경건하고 성숙해지는 걸 느낀다. 성경의 해를 알차게 보내는 것 같아서 좋다. 최소 4 권 이상을 목표중이다 " 라며 의욕을 나타냈다.

교직원 팀은 현재 90 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교수 39 명, 직원 51 명이 임하고 있다. 교목실 민찬양 목사는 이번 성경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의 행로에 말씀의 빛이 가득 비춰지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미니설교

성서인의 심리 방역 (행 2:44-47)

민찬양 목사 (교목실)

많은 이들이 코로나 19 로 인해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위로하는 일조차도 조심스러운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심리 방역' 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마음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 2:44-47 은 가장 좋은 심리 방역의 원리와 방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들은 서로의 삶을 공유했습니다. 단순히 친교의 수준을 넘어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서로의 결핍을 채워준 것입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만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관심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지금 생각나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지갑을 열어서 배달 음식이나 쿠폰을 선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거리두기의 한계를 초월하여 실제적인 나눔과 섬김으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우리 성서인의 심리 방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 학년도 1 학기 개강예배

“말씀으로 과감히 승부하는 공동체가 되자”

▲ 강우정 총장이 권면하고 있다.

2021 학년도 1 학기 개강예배가 8 일 낮 12 시 로고스홀에서 비대면으로 진행되었다. 유정선 교목실장이 '야곱이 길을 가는데'(창 32 장)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유 목사는 야곱은 주의 은혜로 일가를 이뤘으나 주님이 본향으로 떠나라는 말씀을 듣고 고민하게 된다. 그에게는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컸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주의 말씀을 믿고 정든 터전을 떠난다. 순종하고 기도로 간구하면서 본향으로 향하는 그를 주님은 축복하며 온전히 지켜주셨다.

"오늘 여러분은 주님의 부르심으로 여기에 왔고 새 학기 첫날을 맞았다. 우리의 앞길도 야곱처럼 두려움과 여러 고민이 놓여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너와 함께 한다는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줄 것이다. 주의 말씀에 온전히 임할 때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다.

강우정 총장은 기도의 응답으로 한 가족 된 신입생과 재학생을 환영하며 당면한 주요 문제 4 가지를 강조하였다.

첫째, 지난해 일부 구성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데 잘 치유되었다. 자가 격리도 당하였지만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공동체 모두가 온전하게 되었음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새 학기에도 코로나가 우리를 감히 범치 못하도록 방역에 철저히 임하고 이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갈 것이다.

둘째, 우리 대학교육의 특성상 대면교육이 원칙임을 믿는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online) 교육을 하지만 기회가 오고 방법이 주어지면 영적 교류가 좀 더 자연스러운 대면교육으로 전환된다는 점을 명심하고 올바른 복음전도자 양성에 진력을 쏟겠다.

셋째, 다가올 제 3 기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되는 것이 중차대한 과제이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가 주시는 능력과 지혜를 모아 목표를 기필코 달성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말씀의 해'이다. 말씀은 하나님의 숨소리며 호흡과 같다. 호흡이 멎지 않도록 모두가 말씀 읽기로 무장하고 말씀의 새 힘으로 코로나의 우울함을 물리치면서 독수리와 같이 힘차게 비상하는 성서공동체가 되자고 권면하였다.

사회복지사 1급 시험, 87.8% 합격

전국 평균(60%), 27.8% 높아

우리대학 사회복지학과 졸업자들의 2021 년 제 19 회 사회복지사 1 급 시험 (2 월 6 일 시행) 에 43 명이 최종 합격 (87.8%) 하였다. 전국 평균은 60% 이며 이와 비교해 27.8% 높은 합격률이다. 지난 해 코로나 19 의 여파에 따라 대부분의 전공교육이 비대면으로 대체해 온 상황에서 거둔 값진 결과다.

사회복지학과 (학과장 최선희) 는 지난해 12 월 종강과 함께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사복시험 1 급 합격을 위한 온라인 특강반을 운영하였다.

교육은 특강 4 회와 우편 발송을 통한 모의고사 2 회로 사회복지사 1 급 합격에 대한 의지를 다져왔다.

제 37 대 총학생회 출범

백민석 회장 , “믿음과 소망의 성서공동체” 지향

▲ 백민석 회장이 강우정 총장으로부터 인계받은 총학기를 흔들며 제 37 대 총학출범을 공식화 했다 .

제 37 대 총학생회 출범식이 19 일 채플을 마친 후 로고스홀에서 개최되었다 .

백민석 회장은 취임사에서 " 학우들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전하며 우리 대학을 믿음과 소망의 성서공동체로 만들어갈 것 " 을 다짐했다 . 제 37 대 총학생회는 ' 한걸음총학 ' 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게 된다 .

강우정 총장은 격려사에서 " 한걸음총학과 학교는 같은 목적과 방향을 향해 나란히 동행해 갈 것이다 . 우리의 앞길에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와 힘을 합하여 지혜와 사랑으로 돕고 섬기며 열심을 다하는 한걸음총학이 되길 바란다 " 고 격려했다 . 이에 앞서 36 대 남유진 총학회장은 퇴임사에서 " 코로나 19 여파로 활동이 제한되어 아쉬움이 많았다 . 한걸음총학의 발전을 위해 기도로 함께 하겠다 " 고 말했다 .

제 37 대 한걸음총학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백민석 (성서 4) ▲부회장 한혜원 (성서 3) ▲총무 양승일 (성서 2)
▲회계 임재희 (사복 3) ▲서기 양예주 (성서 4)
▲행정지원부 부장 장다솜 (영보 3) ▲차장 박서연 (사복 2) ▲김한별 (컴소 2)
▲예배섬김부 부장 강은구 (영보 2) ▲차장 김무엘 (사복 2) ▲김두영 (영보 2)
▲언론홍보부 부장 장윤서 (사복 3) ▲차장 황인아 (사복 2) ▲박시온 (영보 3)
▲대외협력부 부장 최고윤 (성서 3) ▲차장 박하은 (성서 3) ▲남궁민 (사복 2)
▲열린복지부 차장 강준구 (성서 2) ▲차장 조은경 (영보 3)

새 학기 첫 출발 , 신앙상담과 함께 !

한반도 복음화의 기초 , 신 · 편입생 모두 참여

2021 학년도 새 학기 개강과 함께 교목실 주관의 신 · 편입생 신앙상담이 진행되고 있다 . 신앙상담은 우리대학에 새로 들어온 학우들의 믿음의 실상을 비롯하여 , 가정과 교회 등 현재 신앙생활 환경을 알아보고 , 신앙교육과 훈련 적응력을 점검 , 복음전도자로의 자질 향상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 신앙상담은 해마다 첫 학기 개강과 함께 시작되며 1 차 신입생 , 2 차 편입생 및 복학생 순으로 진행된다 .

신앙상담 절차는 학교 인트라넷 LMS 시스템에 접속 , ' 개인 신앙 생활현황 ' 설문지 작성으로 시작한다 . 설문 내용은 개인별 믿음의 정도와 신앙 환경 , 기독교에 대한 이해 , 미래 포부 등이다 . 현재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전화 상담이 많은데 자신의 대면 수업일과 맞춰 대면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도 점차 늘고 있다 .

성서학과는 학과 전공교수가 상담을 담당하며 비성서학과는 교목실 민찬양 목사가 상담한다 . 성서 , 영보 , 사복은 3 월 말 현재 상담을 마쳤고 컴소와 간호는 4 월 말까지 이어진다 . 민찬양 목사는 그동안 상담 과정에서 일부 학우들이 집안 내 환경 때문에 신앙 기반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등의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

교목실은 신 · 편입생과 복학생 상담을 마친 후 4 개학과 2, 3, 4 학년 전체의 신앙상담도 준비하고 있다 . 학우들의 학과 , 학년별 신앙정도를 DB 자료화 해 향후 신앙과 교육의 질적 향상 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모색해 가겠다는 방침이다 .

2021 각급 위원회 위원장 대부분 유임

학생생활상담센터 운영위원장 등 소폭 변경

「역량진단」 앞두고 교내 안정과 집중 위해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위원회 최은희 위원장

2021 학년도 교내 각급 위원회의 위원장 인사에서 학생생활상담센터 운영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숙 교수, 비교과 위원회 임지영 교수 등 7 개 위원회 위원장의 신규 임명 이외에는 모두 유임 되었다. 이와 함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위원회 위원장에 최은희 교수 등 5 개 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됐다.

이같은 소폭 인사는 2021 년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출 마감 날인 5 월 27 일 까지는 안정된 기반하에 범 학교적인 노력을 진단 평가에 집중, 우리 대학의 모든 에너지와 힘을 한 곳으로 쏟아 붙자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 평가에 대한 면접은 7 월부터 8 월 사이에 이루어지고 최종 발표는 8 월인데 그 때까지 면접에 임하는 담당자들의 준비는 물론 구성원 모두의 기도와 전적인 관심이 필요한 때이다.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규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 2 년이며 당연직, 총장의 임명, 위원간의 호선 등에 의한 선출 등 여러 방법이 있다. 그러나 대학의 정관 혹은 그 보다 상위법에 의한 규정 이외에는 총장의 재량에 따라 임기와 임명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2021 학년도에 유임 또는 새로 임명된 위원회 위원장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총장직속 (21 개)

▲ 교무 ▲ 대학발전 ▲ 기금운용심의 : **강우정** 총장 ▲ 산학협력단 ▲ 대학혁신사업 ▲ 대학소통 ▲ 감염병관리 ▲ 대학성과관리 ▲ 등록금심의 ▲ 도서관평가 : **강규성** 부총장 ▲ 대학혁신사업 실무자협의회 : **김현**동 기획팀장 ▲ 기관생명윤리 : **김조자** 교수 ▲ 국제교류 ▲ 평생교육 운영 ▲ 보육교직원 보수교육 운영 ▲ 한국어교육원 운영 : **김중완** 행정본부장 ▲ 대학자체평가 ▲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 ▲ 교원양성기관평가 : **최은희** 평가감사실장 ▲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조사 평가 : **김성경** 교수 ▲ 대학평의원 : **박종걸** 목사

일립교육부 (6 개)

▲ 신학 : **강우정** 총장 ▲ 사회봉사운영 : **한진호** 밀알사회봉사단장 ▲ 성폭력예방 및 심의 ▲ 학생생활상담센터운영 ▲ NSLB 운영 : **김정숙** 학생생활상담센터장 ▲ 일립교육 : **유정선** 일립교육부장

전공교육부 (12 개)

▲ 장학 및 학생복지지도 ▲ 학사관리 ▲ 교원양성 ▲ 교육과정 ▲ 온라인강좌운영 : **김정원** 교학처장 ▲ 교육과정정책자문 : **강우정** 총장 ▲ 교원인사 : **강규성** 부총장 ▲ 기초교육 : **조윤경** 전공교육부장 ▲ 장애학생지원 : **김형**미 장애학생지원센터장 ▲ 교수학습센터 : **이성아** 교수학습센터장 ▲ 비교과교육 : **임지영** 교수 ▲ 학술연구심의 : **오윤선** 교수

행정본부 (9 개)

▲ 직원인사 ▲ 연구실 안전관리 : **김중완** 행정본부장 ▲ 도서관운영 ▲ 공간관리 : **강규성** 부총장 ▲ 취 · 창업활동 : **박성범** 취 · 창업지원센터장 ▲ 대학입학전형관리 ▲ 선행학습 자체영향평가 : **최육열** 입학취업처장 ▲ 대학입학전형 공정관리 : **한진호** 교수 ▲ 정보보안심사 : **권경만** 기획실장

대학원 (4 개)

▲ 대학원 ▲ 일반대학원 신학과 및 신학대학원 운영 ▲ 일반대학원 간호학과 운영 ▲ 특수대학원 운영 : **김은호** 대학원장

「BRC Ⅱ」 성서학과의 지경을 넘다

역시 성서대학 ! 하나님의 감동 자아내

▲ BRC 를 섬기고 있는 선배들

성서학과 1 학년 학우들만의 필수과목이었던 BRC 가 올해부터 그 지경을 넘어섰다 . 학교는 타 학과 학우들을 위해 올 1 학기부터 「성경읽기 I」 과목을 선택과목으로 개설하였는데 예상을 뛰어 넘는 27 명의 학우들이 수강 신청하여 '역시 성서대학' 이라는 감동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 .

일명 「BRC Ⅱ」 클래스인 이 과목은 BRC 와 형식과 내용이 똑 같다 . 1 년 (1, 2 학기) 내내 매일 (월 – 금) 학교에 나와 아침 8 시부터 1 시간 동안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통독한다 . 4 월 5 일부터는 격주로 8 시 Zoom 수업과 병행중인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결단이 없으면 도전하기 어려운 과목이다 . 클래스에는 성서 13, 사복 7, 영보 3, 컴소 4 명 , 도합 27 명이다 . 학년별로는 1 학년 6, 2 학년 7, 3 학년 5, 4 학년 9 명이며 담당은 한진호 교수 , 섬김이는 권준영 학우 (성서 3 년) 이다 . 이 클래스에 등록하였던 간호학과 학우들은 실습과목과 중복되어 부득이 등록을 포기하였다 .

한편 2021 학년도 성서학과의 BRC 연합 개강예배가 3 월 8 일 오전 8 시 일립관 (B101 호) 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 강규성 부총장이 '새로운 발견' (눅 5:1~11)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

강규성 부총장이 성경에는 주의 놀라운 능력이 담겨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토록 한다 .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은 곧 학문의 새로운 출발점이기도 하다 .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시선이 변화되었다 . 그는 물고기를 대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로 변화 되는 축복을 받은 것이다 . 여러분 모두는 BRC 와 4 년간의 학문을 통해 복음전도자요 나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거듭날 것이라고 말하였다 .

김웅기 교수가 A 반을 , 김정원 교수가 B 반을 각각 지도한다 . 각반별 7 명의 선배가 도우미로 참여해 후배들의 수업전반을 돕게 된다 . B 반은 4 월 첫 주부터 일립관 B101 호에서 주 2 회 (화 , 수) 대면수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자만 가능하다 .

학교 강당 , 교실 등 빌려드립니다

각종 행사에 최적 , 4 · 7 호선 접근성 최고

동문 , 재학생 30% 할인

▲ 로고스홀 내부 모습

사무관리팀 (팀장 양희정) 이 우리대학 내 강당 , 교실 등 각종 시설물의 외부대관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대학 내 시설물 대관은 사회적으로 부상한 공유경제의 확장된 개념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학교 재정 증가와 직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지난해 우리대학 외부 대관 실적은 총 78 건으로 저조한 편에 속한다 . 이는 작년 연초 발생한 코로나 19 여파로 많은 행사와 모임 자체가 취소된 때문이다 . 2019 년도 대관은 220 여건 , 총액은 연 7 천여만 원이었다 . 이 가운데 로고스홀이 23 회 (약 2 천 2 백만 원) 로 가장 많이 대관 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일립관 B101 호 , 풋살장 순이었다 . 대관물의 용도는 어린이집 발표회 , 결혼식 , 각종 행사 및 회의 , 검정시험과 소규모 강좌 등으로 다양하다 .

대관료는 결혼식과 대형 행사 및 회의가 가능한 로고스홀이 8 시간 기준 , 77 만 원으로 가장 높다 . 120 석 규모로 중규모 회의가 가능한 일립관 B101 호가 2 시간 기준 11 만원 , 180 석의 갈멜관 305 호 13 만원 , 60 석 규모의 일반 강의실 6 만원 , 30 석 규모의 컴퓨터 실습실 7 만원이다 . 이와 함께 냉난방기 및 피아노 , 빔프로젝터 , 유무선 마이크 등의 부가시설물 사용을 원한다면 물품별로 약간의 추가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 재학생 및 동문과 교직원의 경우 대관료의 30%, 노원구민은 20% 의 할인을 적용 받는다 . 시설물의 대관은 학우들의 수업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오후시간이나 , 방학기간 및 주말과 공휴일 등이면 가능하다 .

대관 문의 : 950–5508 사무관리팀 신재윤 주임

매력적인 밀알사회봉사단

'학과별 봉사단', '학교대표봉사단' 단원 모집

▲ 밀알사회봉사단

젊음의 끼와 낭만 그리고 추억 만들기 또래 활동에 친구들을 초청한다. 우리 대학교 밀알사회봉사단(단장 한진호)은 봉사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팀을 학과별로 구성하고 역동적인 섬김의 활동을 구상하고 있다.

성서학과는 청소년 대상의 '진로탐색 멘토링(요리, 연기, 만들기 등)'으로 청소년들과 연결하는 멘토링 사업을 벌인다. 사회복지학과는 유기견, 유기묘들을 돕는 동물 복지 활동으로 이웃사랑 정신을 실천하게 된다. 영유아보육학과는 교재교구를 제작, 어린이집에서 실습을 진행하며 컴소 전공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초등학생 위주로 진로탐색봉사(드론 및 3D 펜 교육)에 나선다. 간호학에서는 노인층 대상으로 건강교육봉사 등을 진행하게 되며 봉사 일자와 지역 및 내용은 학과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다. 학과별 봉사팀은 10 명이며 교수들도 함께 하는 '사제동행봉사단'의 성격을 띠게 된다.

전체 학우가 참여할 수 있는 팀은 '예그리나봉사단'이다. '예수 그리고 나'라는 아름다운 의미를 담고 있다. 모집인원은 동일하게 10 명이며 현재는 당고개 및 의정부 일대에 거주하는 독거노인과 결식아동 봉사, 코로나 19 관련 위생키트 제작 및 지역사회와 연계된 바자회 협력 사업 등을 구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지역 동문교회를 방문하여 교회와 주택개보수 및 농촌 돕기 등 전통적인 봉사활동도 거론되고 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우들에게는 1365 봉사활동 시간인증을 부여하고 참여율에 따라 마일리지도 지급받는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봉사단에서 활동한 윤예진 학우는 "사제동행봉사단에서 활동한 경험은 내게 컵과도 같았다. 짧은 기간에 많은 것을 체험하고 담아 올 수 있었다"며 봉사자의 마음가짐과 깨달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봉사단의 활동기간은 1 년이며 주로 방학기간에 진행될 예정이다.

참여 신청은 4 월 말일까지 밀알사회봉사단 950-5439 양승용 직원에게 하면 된다.

꿈빛어린이집 김신덕 원장

꿈빛어린이집 김신덕 원장이 월 20 구좌(연간 240 만원)를 약정하였다.

김 원장은 "하나님께서 후원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감사하다. 아침마다 대학은 형제기관을 위해, 형제기관은 대학을 위해 기도한다. 우리는 주님 안의 귀하고 선한 공동체이며 이같은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하였다.

꿈빛어린이집은 노원구 월계동에 자리해 있으며 김신덕 원장은 13 년째 원장으로 재직중이다. 지난해 서울시로부터 생태친화 어린이집에 선정, 전인적인 아동 중심의 보육기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한국성서대학교『발전후원금』 (2021. 3. 1~2021.3.31)

일반(일시불) **후원자** (합계 8,500,000)

하이플랜(동문) 5,000,000 / 김기숙(동문) 1,000,000 / 손순아(동문) 1,000,000 / 이은광(교직원) 1,000,000 / 강은혜(동문) 5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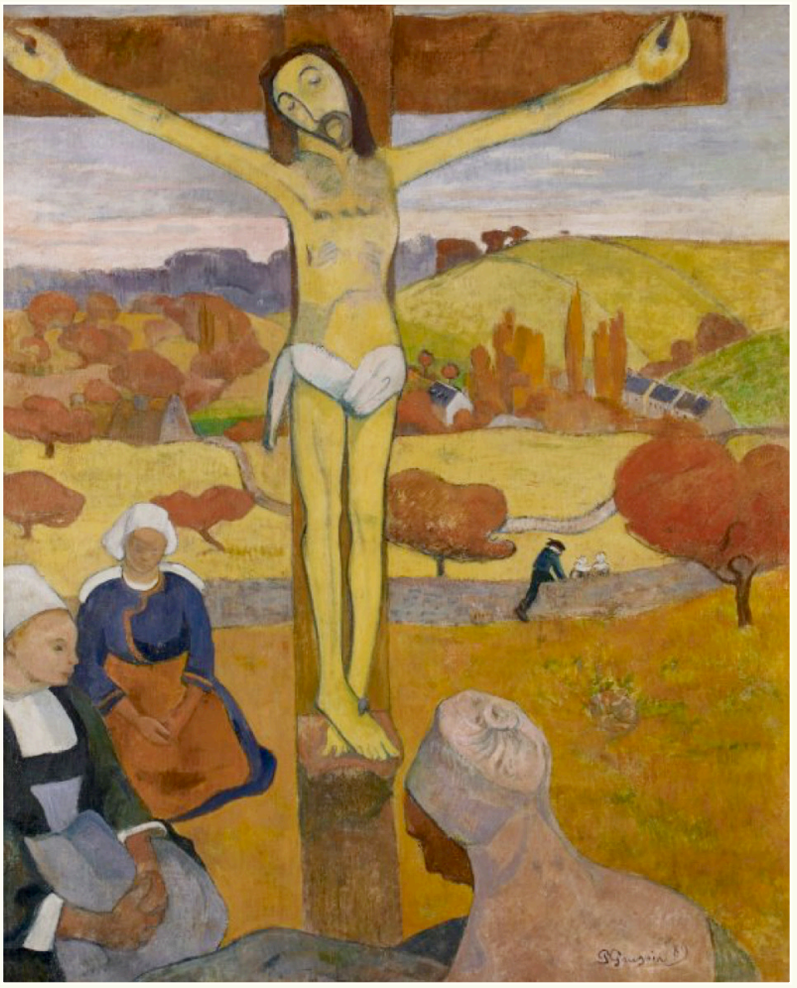
약정 후원자 (합계 68구좌, 연간 납입 예정액 8,160,000원)

동문 및 가족		교직원 및 가족		부설기관	
5구좌	김동원 김옥자	10구좌	최사랑	20구좌	김신덕
3구좌	성인선	2구좌	정지용	5구좌	김혜진
2구좌	고성주	1구좌	이종석	3구좌	김태연 이유진 장윤정
1구좌	고대운 이해성			2구좌	김민경 이가연

합계

최정권의 온유한
GALLERY
12호

황색 그리스도
(The Yellow Christ)



폴 고갱 (Paul Gauguin, 1848 – 1903)
http://www.ofmkorea.org/6847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폴 고갱입니다. 그가 프랑스 브르타뉴 (Brittany) 주에 있는 폰트아벤 (Pont-Aven) 이란 마을을 방문했다가 마을 성당에 걸려 있는 십자가 상에서 영감을 받아 그렸는데 제목이 특이합니다. "황색 혹은 노란 그리스도" 이 그림을 잘 보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는 피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못박힌 손에도 큰 못만 있지 핏자국은 없습니다. 두 발을 함께 박은 못 주변에도 핏자국이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로마 군사들이 박았다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하게 보입니다. 약해 보이는 저 못이 어떻게 체중을 지탱하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옆구리에는 큰 창이 들어갔다가 나온 자리라고 볼수 없을 만큼 작은 상처와 그것도 오래전에 아문듯 깨끗합니다. 옆으로 기울어진 예수님의 얼굴은 편안히 잠이 든 듯합니다. 저 표정에서는 왜 나를 버리시느냐고 소리치던 외침이나 창을 받고 마지막 숨을 내쉬는 목마른 고통은 찾아 볼 수 없습니다. 많은 십자가상의 그리스도를 봤지만 이렇게 깨끗한 십자가와 평안한 십자가의 주님은 만나 본일이 없습니다

처음 그림을 봤을 때 노란색 배경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 피를 흘리고 계신 예수가 아닌 유럽의 가을 들판을 뒤로 한 십자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멈추고 느낌을 따라가기로 했던 그림입니다.

얼마전 뉴욕에서 흑인이 60 대 중반 아시아계 여자의 머리를 축구공 같이 차면서 너는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고 소리 치는 것을 봤습니다. 백이 흑을 무시하고 흑이 황을 미워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시간에 그림의 원근법을 생략하고 멀리 있는 물체와 가까이 있는 물체의 색의 강도가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했다는 고갱의 새로운 시도가 제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그가 황색의 동양인으로 살아가야 할 운명을 지닌 이들에게 황색 그리스도를 그려 놓았다는 것이 그의 의도와 관계없이 위로가 되는 시기입니다.

일립교육부
『성서적 세계관 기초 Ⅰ』 출간

기독교 대학 정체성 강화, 필수 교과목

일립교육부가 기존의 성서적 세계관 시리즈 교재를 보완 증보한 『성서적 세계관 기초 Ⅰ』을 새롭게 출간하였다.

성서적 세계관의 정립은 우리대학 설립 목적인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필수 교과목이다. 이 책은 기존 교재가 다루지 않았던 세계관 차원의 내용 보완과 이를 신앙, 신학적 관점에서도 비교하도록 문호를 더욱 확장시켰다. 창조주 하나님, 그리스도인, 신앙공동체로서의 교회, 한국성서대의 교육 이념과 목적, 목표, 비전 이해하기 등의 13 개 주제로 구성된다. 이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 작품임을 받아들인다면 기독교인의 환경오염 문제는? 등에서 현 시대에 대한 질문도 흥미롭다.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우들의 눈높이를 고려, 평이한 용어 위주로 서술되었다.

김웅기, 김정원, 유정선 공저 / 한국성서대학교 출판부 / 10,000 원

총장의 편지
강우정 총장

4 · 18의 추억

 # 2021 년 3 월 : 4 · 19 세대가 하나씩 가고 있다 . 지난 3 월 박찬세 (朴贊世) 형이 세상을 떠났다 . 그를 처음 만난 것은 내가 총학 대표로 4 · 18 의거를 계획하면서 선언문을 쓸 사람을 찾다가 만났다 . 그는 당시 고대신문의 편집국장이었다 . 운동장 잔디 스탠드의 후미진 곳에서 만났는데 의외로 왜소한 체구에 연약해 보이는 모습이었다 . "형 ! 우리 월요일에 데모 나가요 . 선언문 좀 써 주세요." 그가 우리의 거사 계획이 얼마나 엄청난 위험이 뒤따를 수도 있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단 한마디로 쾌락 (快諾) 하였다 . 그가 쓴 선언문은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

 # 1960 년 4 월 18 일 : 내가 선택한 일이었지만 두려움은 여전했다 . 4 · 18 아침 집을 나서며 미닫이 문턱에 앉아 목이 긴 군화의 구두끈을 매고 있었다 . 오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 등 뒤에서 "기도하자"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왔다 . 화들짝 놀라 일어났다 .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 – 하나님 , 저에게 네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 오늘 그 중 우정이를 이 나라에 바칩니다 . 그가 이 나라의 정의를 외치며 나갈 때에 그의 가는 길을 지키시고 보호 하시며 .... 그 다음에는 무슨 말을 하셨는지 기억 나지 않는다 .

 # 1960 년 11 월 : 4 · 19 이후 장면 정권은 국회에서 이승만 정권 시절의 적폐청산을 위해 ' 반민주행위자 처벌을 위한 법 ' 공청회가 있었다 . 참가 연사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승만 정권의 독재와 부정부패를 성토하며 통과를 주장했다 . 학생 대표 연사였던 나는 "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소급 입법을 만들어 처벌하는 것은 반대한다 . 새 나라를 건설하는 마당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 하신 말을 기억하자" 하고 내려 왔다 . 누가 들어도 4 · 19 혁명투사 (?) 의 모습은 아니었다 .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며 철딱서니 없어 보이던 그 발언이 옳지 않았나 생각 된다 .

직원 컬럼
신재윤 주임(사무관리팀)

손 글씨

혹시 주변에 왼손잡이인데 오른손으로 글씨 쓰는 분이 있다면 ? 나는 어릴 때부터 왼손잡이였다 . 연필을 왼손에 잡고 그림 그리거나 글씨를 쓰려고 하면 아버지가 글씨 만큼은 오른손을 강조했다 . 그러다보니 내 뜻보다 아버지의 노력으로 오른손 글씨 쓰기를 익혔다 . 원래 왼손잡이가 오른손으로 쓰는 법을 배우다보니 예쁜 글씨체와는 거리 멀다 .

언제부턴가 우리 주변에 컴퓨터 보급과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자연스럽게 글씨 쓰는 일도 줄었다 . 일상에서 스마트폰 (또는 키보드) VS 손 글씨 비중을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올 것이다 . 나의 지나간 대학생 시절을 떠올려 봤다 . 수업 시간 때 주요 내용은 무조건 필기장에 적었다 . 시험도 문장이나 단어 등을 일일이 쓰며 공부했다 . 특히 영어 단어는 눈으로 보고 외우기보다 직접 쓰는 게 더 잘 기억 된다는 것에 공감할 것이다 . 그런데 이제는 키보드나 스마트폰으로 글을 쓰는 게 훨씬 편하다 . 오히려 손 글씨가 힘들다 . 속도도 늦고 예쁘지 않다 . 하지만 이번에 펜을 들고 예전의 시험공부 때 써 내려간 느낌을 되살리고자 한다 . 바로 일립교육부가 주관하는 Challenge 2021 성경필사 프로젝트다 .

올해는 우리대학이 정한 ' 성경의 해 ' 이다 . 평소 성경을 읽고 묵상만 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각 구절마다 내 손으로 쓰면서 말씀의 의미를 더 깨달을 수 있을 것 같다 . 나아가 공동체만의 필사 성경 만들기에도 적극 동참하게 된다 . 한편으로는 내 손 글씨가 예쁘지 않아 Challenge 2021 성경필사에 피해 (?) 주는 건 아닐까 ? 하는 걱정도 있다 . 그러함에도 내게 주어진 사도행전 말씀을 정성스럽게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더 집중하며 새겨갈 것이다 .

성서공동체가 이번 성경필사를 통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새기고 적용하는 특별한 해가 되길 소망해 본다 .

교수 컬럼
이한영 교수 (기초교육원)

핸델과 오라토리오 메시아

핸델은 일생에 한 번 들어볼까 말까 한 파리넬리의 노래에 자신의 오페라에 열광하던 청중을 빼앗기게 되었고 이러한 소모적 경쟁으로 결국 핸델과 영국작곡가 그룹 모두 파산했다.

핸델은 작곡에만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업가적 마인드도 뛰어났다고 한다. 그가 어떻게 재기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던 절망의 시기에 작곡을 위촉 받게 된다. 이때 그가 선뜻 수락하고 작곡한 곡이 세계적인 또한 세기적인 명작 오라토리오 메시야이다. 파리넬리를 앞세운 영국작곡가 그룹의 방해로 여러 편의 오페라 공연이 실패에 처한 상황. 독일 사람은 독일로 돌아가라는 협박까지 받으며 절망에 처해있던 핸델에게 대본을 전달한 사람은 친구인 문학학자 찰스 제넨스다. 자선음악회를 개최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내용으로 하는 대본을 핸델에게 건넸던 것이다.

오라토리오 용어는 원래 기도실을 의미하던 오라토리(Oratory) 라는 말에서 파생되었다. 세속 극음악인 오페라와 유사한 형식인 오라토리오는 주로 성서의 이야기 대본에 음악을 입힌 음악장르다. 오페라는 배역을 맡은 오페라 가수들의 분장과 연기 및 무대장치 등을 수반해 연극처럼 공연하지만, 오라토리오는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및 역할을 맡은 독창자들이 연주회 형식으로 공연한다.

오라토리오 메시아는 총 3 부, 53 곡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부 21 곡은 '메시야의 강림에 대한 예언과 탄생', 제 2 부 23 곡은 '메시야의 수난과 속죄'를, 그리고 제 3 부의 9 곡은 '메시야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연주시간도 intermission 없이 약 2 시간 30 분이 소요되는 장대한 작품으로 1742 년 영국 더블린에서 초연돼 대단한 화제를 불러 일으켰다.

현재까지도 오라토리오 중 가장 자주 연주되는 오라토리오 메시야는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성경에 가장 충실하게 전달해 주는 음악작품으로 불리고 있다.

외래교수 컬럼
황인숙 교수 (기독교상담과 정신분석)

직업의 기술

한국성서대학교에 입학하여 전공 선택과 공부한다는 것은 일차적 소명 즉 그 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것이다. 동시에 이차적 소명, 특별한 직업과 삶의 역할로 부름받았다는 걸 의미한다. 공부 하다보면 개인이 처한 내 · 외적 환경에서 발생되는 어려움들로 부르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럴 때마다 생각하면 좋겠다. 진로미래가 크게 낙담될 때도 인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사랑도 기술이 필요하다. 부모님들이 우리를 사랑했지만 기술을 훈련받지 않아서 오히려 상처가 된 걸 경험했을 것이다. 여러분들이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두말할 것도 없으나 간혹 사랑의 기술이 부족하여 오해하고 다투다가 크게 상처를 받은 적도 있었을 것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특정한 일로 부르셨다. 직업의 기술을 훈련받는다는 것은 일정한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능을 배운다는 걸 의미한다. 우리 모두 부르심 따라 때로는 진로 결정자, 때로는 우유부단하고 회피적인 진로 미결정자로 한국성서대학교라는 훈련장에서 직업 기술을 훈련받고 있다. 직업훈련은 좋을 때보다 힘들 때가 더 많다. 야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나 라반의 집에서 훈련한 20 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 직업훈련은 때때로 요셉처럼 개인이 처한 환경에서 당면하는 오해와 부당한 처분도 동반한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처럼 원하지 않는 경쟁을 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학업을 멈춰서는 안 된다. 이 모든 진로 장애물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학업 기간 동안 개인의 소질과 타고난 재능을 최고로 활용하도록 인도하신다. 모세는 40 년, 야곱 20 년, 요셉은 13 년 동안 직업의 기술을 훈련받았다. 이 시간 동안 그들은 쉼 없이 전진하였다. 지금이 어둡고 캄캄하며 불투명하고 불확실하여도 부르심의 소명을 붙잡고 인내 가운데 다가올 미래를 소망해주길 간절히 기도한다.

최정권 목사 컬럼

성서대학교회 담임

생각나는 얼굴들

지는 해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보고 싶은 얼굴이 있어?"

아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사실 그 질문은 타인을 향한 게 아닙니다. 중학교 선생님 두 분이 만든 '얼굴' 동요의 마지막 가사는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가는 얼굴로 끝이 납니다. 기억의 희미함이 이름을 잊게 만들고 얼굴조차 윤곽과 느낌만 남기는 것 같습니다. 얼굴 보면 알 것 같은데 생각이 잘 안날 때, 동그랗게 동그랗게 맴돌다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군가를 보고 싶다'는 말의 조사에 대해 말한 사람은 소설가 김훈입니다. 그는 젊은 날 외국어에 비해 한국어 조사가 가진 애매함을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너를 사랑해' 문장에서 왜 '를'을 써야 하는지 답답하게 느껴졌답니다. 나이 들면서 한국어의 조사가 얽어내는 구문의 헐거움이 오히려 자유로움의 공간이고 이 공간의 활용 여부에 따라서 다양한 표현과 논리성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얼굴은 얼굴이라고 말해야만 내 마음속에 여러 얼굴이 떠오른다. face 로는 안 된다" 심리학에서 어릴 때 생각나는 첫 번째 기억을 묻듯이 처음 떠오른 얼굴은 '은희'입니다.

유치원이 보편화되지 않던 시절, 초등학교는 공동체의 삶을 배우게 해 준 곳이었습니다. 동네 길가의 거리문화가 아니라 공동체에서 처음으로 좋다는 느낌을 준 아이, 은희는 2 학년 때 부반장이었습니다. 머리를 늘 길게 따고 다녔고 머리끝에 뭔가를 매고 다닌 기억도 납니다. 긴 머리 때문인지 얼굴이 유난히 작아 보이면서 그 이미지가 네덜란드 화가 '요하네스 페르메이르'가 그린 진주 목걸이를 한 소녀 이미지로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경험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가는 것이 좋았고 목회자로 교회 안에서 만난 복음의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즘 교회 공동체가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대면예배가 빨리 회복되어서 다 만나보고 싶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6 장의 복음 안에서 만난 여러 사람을 말했는데 교부 '크리소스톰 (Father, Chrysostom)'이 그들에 대해, 금을 주조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조각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이듯이 우리는 이 단순한 이름에서 커다란 보물을 발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바울이 말한 복음의 위대함은 이 사람들이 없다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의 위대함은 바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고 싶은 사람이 있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일 겁니다.

임경미의 토닥토닥 시 81

할머니와 장미 _ 윤주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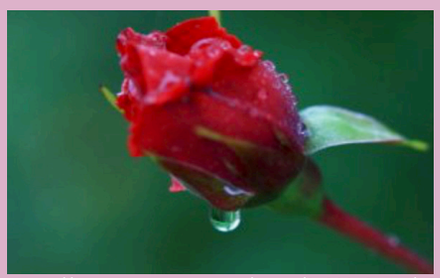
나는 보았지

목 밑까지 타오르던
초여름 가뭄
새벽기도 마치고 돌아오신 할머니가
말라붙은 장미 위에
물을 주시는 걸

기도하는 마음이었을 거야

밤새
내리던 단비는 그치고
맑게 갠 새벽

허리 아파 누우신
할머니 방 창문을 들여다보고 있는
갓 피어난 장미 송이의
젖은 눈망울들을



https://search4.kakaocdn.net/argon/0x200_85_hr/BSXpzdD2a0v

가뭄으로 말라붙은 장미를 애타게 바라보는 할머니가 있었다. 할머니의 간절한 기도는 단비가 되어 밤새 뿌리에 닿았다. 마침내 맑게 갠 새벽, 장미가 피어났다.

피어난 장미는 기쁨을 알리고 싶었다. 그런데 할머니가 허리 아파 누워계신다. 장미는 밤새 젖은 눈으로 할머니 창문을 들여다보았다. 맑게 갠 새벽, 마침내 할머니가 허리를 일으키셨다.

서로를 지켜주고 밤새 돌보아주는 할머니와 장미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삶의 지향점이다.

대학어린이집

영아반 적응 프로그램

▲ 학부모가 영아반 자녀의 어린이집 적응을 돕고 있다.

대학어린이집은 지난 3 월 2 일부터 20 일까지 3 주간 영아반 적응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영아가 어린이집 입소 후 부모, 교사와의 만남과 헤어짐 등에 적응하도록 사전 도움을 주게 된다. 코로나 19 예방에 따라 A, B 반으로 나눠 운용하였고 방역지침은 철저히 준수 하였다.

적응 프로그램에서는 부모님과 함께 어린이집 환경 탐색하기, 부모님과 헤어져 놀이하기, 점심 식사 및 낮잠 자기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교실 들어오기를 낯설어 하는 영아들은 개별 특성에 맞게 시간을 늘려 적응하도록 도왔다. 교사들은 낯선 환경에 적응을 시도하는 영아를 위로하고 도우며 매 순간 기도의 마음으로 진행하였다. 영아들은 이와같은 적응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집에서 안전하고 즐겁게 놀이할 수 있게 된다. **[기쁨반 문예린 교사]**

월계종합사회복지관

노인질환 맞춤형 먹거리 지원 사업

▲ 노인성 질환 맞춤형 먹거리 지원에 사용될 요리 재료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우양재단에서 주관하는 노인 질환 맞춤 먹거리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 천만 원을 지원 받는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 19 영향으로 레트로트 식품을 섭취해야 하는 노인성 질환 어르신에게 맞춤 건강 먹거리를 지원하게 된다. 사업은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어르신 중에서 식이조절이 필요한 노인성 질환자(당뇨, 혈압) 50 명을 선정, 질환에 도움이 되는 4 가지 품목 이상을 4 개월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영양사가 품목에 맞는 질환별 맞춤 식단과 레시피까지 제공, 직접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을 이어간다.

코로나 여파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월계종합사회복지관은 더 어렵고 힘든 환경에 놓인 이웃과 질 좋은 먹거리로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복지서비스 2 팀 / 문유나 팀장]

꿈빛어린이집

생태친화 어린이집

아시아투데이

노원구, 생태 친화형 어린이집 본격 운영

노원구 관내 꿈빛어린이집 원아들이 숲에 조성된 체험시설에서 체험활동을 하고 있다./노원구 제공

서울 노원구가 영유아들이 마음껏 자연을 접하며 놀 수 있는 아이 중심의 생태 친화적인 어린이집을 본격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사업비 8000만원이 소요되는 이번 사업은 기존 획일화된 보육과정에서 벗어난 것이 특징이며 사업 운영 방향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사업의 구심점 역할을 할 거점형 어린이집 운영이다. 국공립 어린이집 3곳(꿈빛, 중계해봄, 파란나라), 민간어린이집 1곳(삼육대부설), 가정어린이집 1곳(베베슬레) 등 총 5곳을 정했다.

사전에 컨설팅과 세미나 등을 거쳐 실내 환경 개선을 완료했다. 플라스틱 교구는 친환경 소재의 바구니로 교 실외는 자연친화 텃밭 등을 조성해 자연을 가까이에서 관찰할 수 있도록 했다.

2년차를 맞는 올해는 거점형 어린이집 환경에 맞춰 놀이터 등 실외 환경개선에 더욱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 하나는 생태친화 적 보육을 위한 교사 연구 모임 운영이다. '디딤돌 공동체'가 중심이 돼 활동한다. 디딤돌 공동체는 어린이집 33개소 교사 77명이 10개의 그룹을 구성해 활동한다. 각 그룹은 텃밭활동, 세시잔치, 계절별 생태 놀이 등 주제를 정해 연구·토론하고 적용 사례들은 공유하면서 생태보육 실천을 위해 함께 성장해 간다.

지난해 활동에 참여한 교사들은 '생태 체험 활동에 대한 고민을 서로 교감하며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며 후기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구는 2019년부터 전세버스차량 2대를 임차해 어린이집에 차량을 지원하고 있다. 대다수의 어린이집이 차량이 없어 실외활동에 어려움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어린이집이 이용신청을 하면 유아숲 체험장, 불암산 나비정원, 노원에코센터, 수락산, 영축산 등 관내 다양한 장소에서 생태교육이 가능하다.

오승록 구청장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마음껏 뛰놀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자연과 놀이, 아이가 중심이 되는 생태친화 보육 환경 정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생태 친화형 어린이집 선정과 관련된 보도자료

꿈빛어린이집은 2020 년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거점형 생태친화 어린이집에 선정된 이후 1 년간 영유아의 생태체험과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하였다.

이 교육과정은 아이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시키며 자연 · 놀이 · 아이를 중심으로 운영, 조화로운 보육 패러다임 전환까지 가능할 수 있다. 학부모들은 생태프로그램이 도입돼 다양한 날씨와 환경도 경험하고 자연에서 뛰놀 수 있어 좋다는 평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코로나 19 로 여러 제약이 있지만 좋은 교육을 고민하고 이를 교육과정에 반영해 주어 감사하다는 의견도 보내 주었다.

올해는 어린이집 앞 텃밭에 유아들이 키우고 싶은 작물을 선정하고, 흙 고르기부터 텃밭 가꾸기까지 전체 과정에 참여해 심고 수확하는 기쁨까지 느낄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특수교사 박연희]

성서대학교회

성서대 신 · 편입생에게 식사권 제공

▲ 신 · 편입생의 새학기 출발을 응원하기 위한 중식 쿠폰

성서대학교회는 2021 학년도 한국성서대학교 신 · 편입생 300 명에게 교내 식당 식권 1 매씩 제공하기로 했다. 캠퍼스 안에 속한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학우들의 새 학기 출발을 격려하는 뜻을 담았다. 앞으로도 성도들의 귀한 헌금이 성서대 학생들에게 이웃사랑의 실천과 복음 전도자의 의지가 견고히 세워지기를 기도한다.

3 월 28 일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3 월 29 일 ~ 4 월 2 일까지 오전 5 시 10 분 로고스 홀에서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는 성서대학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오종철 목사]**

상계백병원어린이집 ____ 열린 어린이집

▲ 열린 어린이집 행사에 참여한 학부모가 자녀와 신체 놀이를 하고 있다.

상계백병원어린이집에서는 지난 26 일 학부모와 함께 하는 열린 어린이집의 날을 진행하였다. 행사 참석을 원하는 학부모들은 사전에 코로나 19 검사를 받고 이상이 없을 경우 참석을 허용했다. 당일 숲체험 행사를 계획하였지만 뜻하지 않은 심한 미세먼지로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 대신 어린이집 유희실에서 에어바운스 놀이, 풍선놀이, 신체놀이 등 다양한 대체 활동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참석한 학부모들은 평소 자녀의 어린이집 생활여부가 궁금했다. 이번행사를 통해 함께 지내며 부모사랑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전하게 돼서 행복했다. 특히 " 선생님들의 수고와 사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더욱 고마웠다. 매일매일 교육에 알맞은 환경을 만들고 사랑의 마음으로 지도해주는 교사들의 노고가 감사하다 ." 며 힘찬 박수를 보내주었다.

[푸른반 고하은 교사]

노원육아종합지원센터 ____ '상계 9 동 도담도담 나눔터' 오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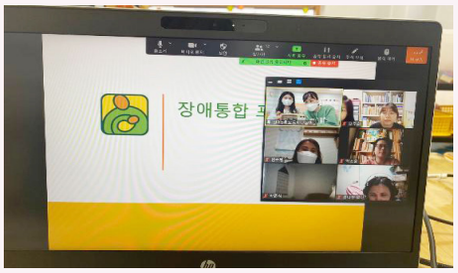
▲ 새롭게 개관한 '상계 9 동 도담도담 나눔터' 의 내부 전경

노원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 3 월 8 일 노원구의 8 번째 열린육아방 도담도담 나눔터인 상계 9 동점 (보람아파트 내) 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도담도담 나눔터는 각 지점마다 특색이 있는 주제를 선정해 운영된다. 개관한 상계 9 동점은 '미용실', '마트', '생선가게', '정육점' '과일가게' 등의 시장놀이를 재미있고 유쾌하게 즐길 수 있다. 도담도담 나눔터는 다양하고 안전한 놀잇감과 놀이공간, 양육상담, 부모교육, 부모 – 자녀관계증진 프로그램까지 무상 제공한다. 영유아기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부모의 육아부담 경감을 지원하는데 영유아와 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도담도담 나눔터를 통해 영유아가정의 건강하고 행복한 육아를 위한 맞춤 · 밀착형 지원을 계속 확장해 갈 예정이다. **[보육전문요원 이선정]**

상계5동어린이집 ____ 보나 T-Ti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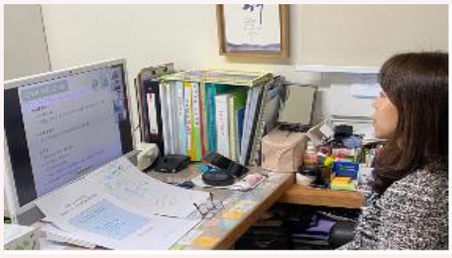
▲ 부모들이 새학기 교육운영과정을 ZOOM 으로 안내 받고 있다.

지난 3 월 15~22 일까지 상계 5 동어린이집에서는 '보나 T-Time' 이 이루어졌다. 해마다 새로운 반 배정에 따라 학부모들과 교육운영과정을 안내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며 화상 (zoom) 으로 이루어 졌다.

정해진 시간에 학부모와 담임교사가 화상을 통해 인사를 나누었다. 한 해 교육과정이 상세히 소개되었고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이어갔다. 예시된 ppt 자료를 통해 특성화 프로그램과 통합보육도 알아볼 수 있었다. 화상 (ZOOM) 진행이다 보니 이후에도 구두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ppt 자료를 가정에서 읽도록 배포 하였다.

학부모들은 " 한 해 교육 흐름을 알 수 있어 좋았고 여러 궁금증이 해소돼 만족하다 " 는 반응으로 응원해 주었다. **[예쁜꽃잎반 유정현 교사]**

늘사랑어린이집 ____ 운영위원회



▲ 장수진 원장이 제 1 처 운영위원회를 화상으로 진행 중이다.

늘사랑어린이집은 25 일 제 1 차 운영위원 회의를 온라인 (ZOOM) 으로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위촉장은 개별로 전한 후 갖는 온라인 회의다. 운영위원회는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해 만남을 갖고 있다. 구성원은 학부모, 보육교사, 한국성서대학교 영유아보육학과 장현진 교수 등 총 6 명이다.

운영위원들은 앞으로 학부모와 영유아의 눈과 귀가 되어 어린이집의 건전한 운영 방향 등과 의견 제안 및 심의 과정에 참여하게 된다. 회의에서는 2020 년 운영보고와 결산, 새해 예산 심의 및 행사 및 기타 안건 등으로 진행되었다. 앞으로도 발전하는 늘사랑어린이집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됐다. **[즐거운반 윤영숙 교사]**

www.bible.ac.kr

「성서대학돕기운동」 기부현황

KBU와 함께 꿈꾸는 복음의 내일, 성서대학돕기 운동이 복음을 심습니다!

- 기부기간 2021년 2월 2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신규약정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 국내기부 국민은행 835-01-0178-931 예금주 한국성서대학교 / 하나은행 123-910004-14705 예금주 한국복음주의학원
- 국외기부 PayPal : kbiblefunds@gmail.com / Mail Check : Payable to Korean Bible Funds _ 646 Eliska Ct. Walnut Creek, CA 94598
  Wire Transfer : Wells Fargo Bank _ Korean bible Funds _ Account No. : 384 048 3592 _ Routing No. : 121 000 248
- 접 수 처 01757 서울 노원구 동일로214길 32 _ 한국성서대학교 대외협력실(복음관3층) _ Tel. 02.950.5599, 5517 Fax. 070.4275.0161

100만원 이상 기부자 명단

㈜바이오웰스팜	2025만원(현물)	박선(이사)	120만원(운영)
강우정.강진(총장)	1364만원(운영)	홍설자(이사)	100만원(운영)
성서대학교회(최정권 목사)	1111만원(운영)	이례장학	100만원(장학)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강남용 대표)	500만원(운영&장학)	김기숙(신학대학원)	100만원(운영)
유한재단	342만원(장학)		

약정자 명단

동문 및 가족
1구좌 고대운 김정은 박연서 최진희
2구좌 이한나
3구좌 양혜영
5구좌 강경옥 김혜진 양연주

재학생 및 가족
1구좌 고희자 권순길 기병문 김선경 김양순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심희정 안양희 이성란 이성령 장영철 전계화 전명자 전용숙
2구좌 전옥순
3구좌 안태유
4구좌 박지성
5구좌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이재현 전영준

교직원 및 가족
1구좌 박덕좌 이종석
2구좌 정지용
3구좌 박인혁
10구좌 김성경 유정선 임지영 최사랑

부설기관
1구좌 차도영
3구좌 권효진 김현애 송애솔 이효빈
5구좌 박연희
10구좌 지주나
15구좌 차건

성서선교회
5구좌 김옥자

일 반
1구좌 오미선 이관헌
2구좌 허정안 홍춘호
5구좌 차인숙

단체 및 기관
5구좌 하늘누림교회

기부자 명단

동문 및 가족
5천원 김샛별
1만원 강상미 강순성 강신용 강애솔 강은아 강은해 강정민 강주옥 강춘자 고성호 곽미화 구본길 구세경 구진경 권명순 권순실 권순웅 권슬기 권유철 권정인 권지연 권희조 금동옥 금필규 기상혁 김가영 김가희 김경수 김다솔 김다예 김도훈 김두환 김명희 김무엘 김민겸 김민아 김민음 김병렬 김보희 김선근 김성애 김세현 김수연 김순덕 김순화 김승현 김승훈 김승희 김유미 김은석 김은주 김은천 김은혜 김응환 김일준 김재한 김재현 김정례 김정은 김정희 김준우 김지선 김 진 김진숙 김진영 김춘덕 김태용 김하은 김한나 김현송 김현정 김현진 김혜영 김화석 나선영 남경숙 남범수 남상숙 남성휘 노명민 노한나 도 만 류수진 류요한 류희정 마효정 맹현진 문기철 문성령 문정혜 문홍철 박경수 박경옥 박수진 박순임 박아론 박연서 박영근 박윤복 박은경 박재신 박재윤 박종주 박주옥 박창대 박창민 박필종 박향식 박형택 박혜인 반해빈 반해성 방지연 배은휘 배창경 배효순 백명희 백연주 백해송 백향목 변지윤 서규원 서미희 서유미 서 융 서정민 서지혜 서 현 서희영 성한나 손명배 손영화 손윤숙 손주현 손진규 송민규 송성은 송순덕 송영자 송원복 송현미 신경자 신대민 신미선 신은혜 신종수 신지은 신태양 신혜영 심두한 심순자 심인자 심희남 안현정 양은숙 엄보라 엄보영 여지은 연현숙 오세천 오유림 오은희 오찬미 오채엽 오흥복 용아름 우현아 원윤희 유미정 유보아 유소담 유수정 유영진 유주홍 윤영원 윤정숙 윤정숙 윤지준 윤혜자 이권호 이근중 이두현 이만수 이명호 이미정 이민우 이민화 이병주 이상용 이상진 이상필 이석호 이수경 이수진 이신재 이영광 이영식 이용원 이용철 이윤주 이정숙 이정익 이정호 이정훈 이주희 이지성 이진경 이진리 이창호 이채녀 이철승 이학준 이현무 이현섭 이현지 이혜윤 이화연 인지혜 임남연 임삼일 임은성 임찬웅 장순호 장윤국 장익심 전명수 전명자 전미영 전상호 전아름 전아영 전한나 정금숙 정다연 정다운 정선도 정영교 정은희 정인철 정재연 정지현 정진영 정혜문 정희영 조소연 조수빈 조승희 조영희 조용희 조유민 조은경 조은화 조차현 조태환 조하영 조현석 주민자 주영덕 주진우 지영환 채유신 채종원 최규봉 최서희 최성자 최승주 최승진 최예슬 최윤석 최인호 최종운 최진희 최현정 최혜림 탁국현 탁선화 탁윤석 하수현 하 진 하진우 한경순 한상장 한성광 한혜우 허영숙 허정운 홍금주 홍선호 홍성대 홍애진 홍정심 황선명 황승호 황형록 설에스더 신에스더
1만5천원 이예람
2만원 강나경 구연민 국소영 길득희 김미나 김미향 김복녀 김성훈 김순녀 김연정 김영래 김영주 김영태 김용길 김원미 김은하 김재원 김정복 김정훈 김종재 김지원 김태분 류충열 마혜진 박재송 백연옥 성용제 소경숙 손성원 송만호 신정섭 신정화 신화영 오상석 오정순 왕용분 유순희 유의숙 윤광길 이구영 이기주 이상복 이선영 이아름 이영애 이유미 이유진 이은애 이의선 이정목 이종임 이충희 이현우 이환기 임수경 임은희 장재경 장재원 장정인 전영희 전택복 정영용 정옥순 정 완 조성진 최선옥 최수지 최인경 최호정 탁명화 하지혜 한민수 홍혜주 황인숙 황보혜영
3만원 강수진 공복순 공지은 구예은 권서영 권오규 권은지 김동교 김민주 김석환 김세련 김종숙 김지애 남지원 문순일 문진아 민승철 박기혁 박문용 박민송 반세호 방애자 배예진 서명주 성인선 신연정 양연선 양혜영 윤문순 이길순 이남희 이다윤 이성은 이안나 이영섭 이윤성 이재국 이주연 이현지 장영훈 장혜란 전다정 전영이 전지혜

기부자 명단

정슬기 최광희 최소린 최양서
최예린 최은희 탁현정 태지선
4만원 김연주 박주은 배정환 신은진
5만원 강경옥 길소윤 김기국 김종남
김준오 김진경 남영란 남희경
박광필 송복순 신상춘 안선례
유양숙 이기훈 이병철 이부호
정예나 조연정 천유림 최송희
허성희
6만원 정동주
8만원 임연식
10만원 김동관 김장교 김진만 서광진
서수경 신치선 양연주 장명헌
하승훈
11만원 유선미
20만원 김남웅
50만원 강은혜
100만원 김기숙 이례장학

재학생 및 가족

5천원 김승은
1만원 강정희 고희자 권순길 김선경
김양순 김요셉 김은이 김혜미
류한나 박기영 박대종 박재숙
선동하 선유정 송은라 신연정
신영옥 심희정 안양희 엄미자
윤효심 이광승 이동기 이성란
이혜진 임동현 임동화 장연정
전계화 정창금
2만원 강세윤 김형태 박혜숙 서성식
이마리 이성령 이영림 전명자
전옥순 최혜진 홍은선
3만원 김윤정 김은선 김재임 박인순
박재완 배정숙 안태유 이종권
3만5천원 곽승우
4만원 박지성
5만원 김선주 김성안 김종호 유정열
이재현 이지은 전영준 정미영

교직원 및 가족

5천원 김 희 이소연 조아라
1만원 강신애 구자람 권관희 김다윗
김미영 김상일 김선준 김 성
김세미 김세진 김애란 김유진
김지성 김지현 김춘하 김형중
김혜성 류은미 박남일 박덕자
박묘서 박주양 서광철 서의영
안수자 양승원 윤명섭 이문자
이승영 이종우 이지희 임수아
장경순 장원경 장혜지 전광선
전귀선 정보미 조철남 조형섭
최미영 허윤민 요시다고조
1만5천원 김병수 김영직 윤혜진 이은영
하희수 황찬범
2만원 강민경 강승현 고진주 권민주
권서후 김남준 김세원 김장호
박은주 박태용 안 호 양승용
오철송 유성현 장길정 장지순
정순애 정지용 최난영 최지연
한상만 한정숙
2만5천원 김봉재 김은실 문지예 민경은
배민정 이상일 정은상
3만원 권오섭 방진희 임경미
3만5천원 김창현 박성범 신재윤 양희정
유다운 유수연 전영호
4만원 민찬양
4만5천원 강지원 강지홍 강지훈 김덕원
5만원 김성호 김원빈 장정순
5만5천원 김미숙 김은영 김현동 신지수
유미나 이광삼 이은광 이호섭
최사랑
5만6천원 강영숙
6만원 이성아 추연진
6만5천원 권순범
7만5천원 김덕현 임환석
9만5천원 박인혁
10만원 강정원 고미숙 김도경 김성경
김승호 김정숙 김주아 김태규
김현광 김현욱 김형미 문무열
박성환 배진형 안정선 양혜경
오은주 원영희 유정선 이민규
이소정 이은주 장인순 정순례
조현진 조혜경 최영태 최은희
현우석 김정원(신) 김정원(영)
10만5천원 신금주 장성희 최육열
11만2천원 강승태 강일석
11만5천원 최지은
12만원 김웅기
12만5천원 권경만
13만5천원 곽규상 김중완 한진호
15만원 강규성 김은호 김희수 이한영
20만원 김창원 박태수 정해덕 정휘진
조윤경
25만원 이강동 임지영
30만원 최선희
56만원 강일아
100만원 홍설자
120만원 박 선
1364만원 강우정.강 진

부설기관

1만원 김옥준 김은지 김지은 박제하
이다솜 이유진 임재택 차도영
최미정 최선영
2만원 장윤정 진양희 홍옥주
3만원 권효진 김미화 김현애 문유나
변송이 송애솔 오윤아 위소진
유정현 이효빈 탁지혜 허성보
호한나
4만원 박미선
5만원 김선화 박연희 신영자 여미희
이지연
6만원 장나혜
10만원 권정아 이인경 장수진 전안나
조지선 지주나
15만원 김신덕 김화영 안미희 차 건
30만원 오동준

권선제일교회

1만원 이상규
5만원 권선제일교회

동광교회

1만원 김복례 한미희 배 윤.김현진

밀알교회

1만원 서효정

비전교회

2만원 장은경
3만원 장석원

서문교회

1만원 강선애 박경자 윤인호 임용주
1만5천원 정찬수
20만원 서문교회

석계제일교회

1만원 채용문

성서대학교회

1천8백원 박용숙
9천원 김동준 김화영 박진석 박혜영
이 천 장인순
1만원 강경혜 오경원 이가은 이대영
이대한 이정철 이지수 이진호
임숙정
1만8천원 고경숙 고미숙 김겸일 김배열
김상은 김성철 김순자 김신덕
김윤선 김정숙 김지윤 김진철
김향순 김현미 김혜련 김희현
남지영 박상희 박영숙 박영신
박은선 박주형 서 훈 송인희
송형기 신양금 안영숙 양순정
양천식 오경모 오종철 용정자
이관영 이대우 이소정 이영진
이정숙 이정자 이종옥 이주현
장근문 전옥순 정감순 정나영
정승연 정현숙 조영희 조정선
조현진 최미숙 최용석 최인숙
한성실 한충헌 허진순
2만7천원 김동수 유상호
3만6천원 강규성 강유진 김성진 김승환
김은미 김은혜 김인영 김인자
김지영 김혜진 박 선 박성환
박은유 박이숙 박태수 방미경
양태환 오은주 유정선 유중엽
이경신 이길우 이승림 이영희
이윤봉 임성일 정명수 정무실
정예진 조병하 황서린
4만5천원 김순옥 노봉환 장혜린
5만4천원 김문응 김영헌 김원태 김현석
서윤희 송재철 유은주 이숙영
조혜경 최선희
7만2천원 박선하 장진희
8만1천원 최강희
9만원 강성훈 권경만 길용희 김동선
김일선 박세건 박온오 이은실
이정임 전명진 최대만 최정권
한진호
18만원 권태완
19만8천원 김웅기
21만6천원 장병호
27만원 임철순
1111만원 성서대학교회

성서선교회

1만원 곽 해 김세현 김정희 김초롱
오성군 이승학 이태학 정혜란
진재호 최영란 최영숙 한금순
/열매맺는교회
2만원 신영옥 오근수 우용식 이수병
강영애.신한성/금촌성서교회
이준구.안춘자
3만원 권순호 김덕규/태광성서교회
5만원 김옥자 김종구 이경식 한금례
/중앙성서교회 원로 · 은퇴장로회
10만원 김용철 김윤규 송인숙 현희철
/벧엘성서동우회/삼일성서교회
/중앙성서교회 바울선교회
12만원 황인돈.김순자
15만원 이혜선

수원교회

1만원 강동형 김일섭 정유광 홍성호
2만원 반요셉

이레교회

1만원 손미희 이채은

장자교회

4만원 권정숙
5만원 장자교회

주향교회

1만원 유병우
2만원 정우진

퇴계원제일교회

1만원 유재란
10만원 퇴계원제일교회

평원교회

1만원 성경아

평화교회

1만원 안종민 안지선

풍암교회

1만원 유금례 윤은정

함평대동교회

1만원 김희경

효성교회

1만원 오혜숙 진경숙
2만원 진효숙

일반

1만원 강소라 구필례 권숙영 권창석
김기수 김대석 김대성 김명호
김미라 김범설 김범준 김양권
김유벽 김은경 김인호 김천수
김희권 노용현 노은경 류계현
류찬성 문해영 박미숙 박영미
박영희 박지성 박해숙 서민석
소아름 송수용 심재순 안애숙
오미라 오미선 오현숙 원영훈
유해연 유화실 이관헌 이성희
이우윤 이원주 이유진 이현수
이혜숙 임숙자 장명웅 조동빈
조목장 조언상 조여원 조은해
진윤승 최경숙 최범식 최서영
최은실 최인숙 한춘경 황영수
/위샐러듀
2만원 강명옥 길옥석 김동석 김동우
김성래 김윤숙 김종환 김하람
문광철 서병준 서성원 우윤주
이일신 정주아 정형채 조혜령
최국열 최지연 홍춘호
3만원 김미수 김종환 손승현 윤미선
장문석
4만원 허정안
5만원 강한성 서미혜 석지현 이천화
주은자 차인숙
10만원 류동원 박경혜
20만원 유광석.민경홍
30만원 박순정

단체 및 기관

1만원 (주)대우노즐/(주)삼현미디어/
김포예수사랑교회/늘푸른교회
/맘키즈푸드/목양교회/이음기업
/행복한교회
2만원 (주)삼삼전기관리공사/동신자원/
바르고복된교회/열방교회
3만원 꿈꾸는교회/어린양교회/우리교회
/의정부좋은나무교회/한길교회
(김오권)
4만원 도새기짱/플랜팅시즈
5만원 다드림교회/미사목민교회/상일교
회/예일에드컬/천성교회/평안교
회(송파)/하늘누림교회/행전교회/
향기나무
10만원 (주)바다나라/(주)이레E&C이레
디자인/가성교회/구리성광교
회/구리중앙교회/대광교회/도봉
성실교회/두암산업(주)/만나교회
/상록교회/생명샘교회(성주)/서부
중앙교회/성복중앙교회/소망교
회/오감발달연구소/철원제일교회
/청평교회
20만원 (주)소원기건
30만원 한민제일교회
342만원 유한재단
500만원 하이플랜종합건축사사무소
2025만원 (주)바이오웰스팜

소계(20210221~20210320)
88,159,552
누계(20210301~20210320)
60,264,542